



2024년 1분기 동해·묵호항 물동량 694만톤 처리

- 전년 대비 석탄 및 시멘트 등 반출입물량 17.4%(146만톤) 감소 -

동해지방해양수산청(청장 이재영)은 2024년 1분기 동해·묵호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은 694만톤으로, 2023년 1분기(840만톤) 대비 146만톤(17.4%)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.

항만물동량의 주요 감소 원인은 화력발전소의 송전제한에 따른 전력 생산량 감소로 화력발전소의 주연료인 석탄 수입량이 105만톤 감소하였으며, 채산성 낮은 시멘트의 수출물량은 13만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
2024년 1분기 중 동해·묵호항에서 가장 많이 처리한 화물은 석회석 260만톤, 시멘트 190만톤, 석탄 153만톤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중은 각각 37.4%, 27.4%, 22.0%를 차지하였다.

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“동해·묵호항의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통해 항만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	책임자	과 장	조규동 (033-520-6161)
		담당자	주무관 김선진, 정의창 (033-520-6170~1)	

참 고

24년 1분기 항만물동량 처리 현황

□ 동해 · 묵호항 화물별 현황

구 분		합계(천톤)	석회석	시멘트	석 탄	아 연	망 간	석고	백운석	철광석	기 타*
2024년 1분기		6,938	2,596	1,899	1,530	136	6	107	60	186	418
2023년 1분기		8,396	2,491	2,029	2,577	210	128	186	54	161	560
전년 대비	증감량	△ 1,458	105	△ 130	△ 1,047	△ 74	△ 122	△ 79	6	25	△ 142
	증감율	△ 17.4	4.2	△ 6.4	△ 40.6	△ 35.2	△ 95.3	△ 42.5	11.1	15.5	△ 25.4
비 중(%)		100	37.4	27.4	22.0	2.0	0.1	1.5	0.9	2.7	6.0

* 기타 : 유류(178천톤), 폐곡(96천톤), 기자재(30천톤), 슬래그(17천톤), 황산(18천톤), 골재류(11천톤), кокс(6천톤) 등